

한국 개화기의 간호교육에 관한 연구

이 자 형
(이화여자대학교 간호대학)

==차 례==

- I. 머리말
 - A.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B. 연구의 방법과 제한점
 - II. 한국전통사회에서의 여성
 - A. 한국 여성의 일
 - B. 한국 여성의 교육
 - III. 한국에서의 간호교육
 - A. 간호교육기관의 설립
 - B. 간호교육의 관련활동
 - C. 간호교육과 사회
 - IV. 맺음말
- 참고문헌
영문초록

I. 머리말

A.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한국에서 간호교육이 실시된지 80여년이 지난 현시점에 이르러서 역사 속에서 자료를 발굴하여 분석·비판하고자 하는 것은 어떠한 학문이든지 그 학문의 성립 과정과 연혁을 살펴봄으로써 그 학문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도울 수 있기 때문이다.

역사적 叢書를 하나의 변천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현재를 규정하는 요소로 파악하려는 입장에서 볼 때 그 본질을 규명하는 한 걸음이 될 수 있다.

역사적 叢書 그 자체는 이미 과거의 것이나 현재는 과거의 延長이며 발전이고 또한 미래를 약속하는 선행조건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성을 위한 한국 최초의 전문직 직업으로 교육된 간호학의 설립 당시 사회상, 특히 과거 한국사회에서의 여성 관계를 고찰함은 개화기 한국 여성에게

실시된 간호교육의 의의를 재조명함과 동시에 추체성 있는 한국의 간호학으로서 앞으로의 새로운 목표를 제시하는 데에 일부 이라지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 여성의 일 즉, 직업과 여성교육을 역사적으로 추구하고 또한 개화기후 여성교육이 실시되며 한국 여성들에게 최초로 실시된 직업교육으로서 간호교육을 연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B. 연구의 방법과 제한점

본 연구는 초기 한국 간호교육의 구조와 성격울 결정짓는 주요변수층의 하나가 당시 여성문제의 관계된다는 인식으로부터 출발하였다. 따라서 간호교육을 고찰함에 있어서 먼저 그 교육상황의 基礎를 밝히기 위하여 개화기 이전까지의 여성의 일, 특히 직업상태와 여성에게 실시된 교육등을 통하여 한국에서 실시된 여성을 위한 최초의 전문직교육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모든 역사연구의 사명은 이 세상에 없는 인간들의 유산목록을 정리하는 일이 아니고 그들이 살아 움직이고 있었을 당시 모습을 그대로 재생시키는 것이다.¹⁾

이는 그 동안에 연구가 교육적 표층에는 많은 관심을 받는 반면 그 사회적 조건과 교육대상자의 상태에 대해서는 그 관심이 적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기록에 의한 심리적·주관적 史料를 병행하여 보다 심층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그러므로 여성관계자료집, 여성학 자료와 간호교육에 관계되는 저서와 논문 및 개화기까지의 사회상을 다각할 수 있는 역사서, 당시에 간행된 잡지와 신문을 중심으로 고찰하는 문헌연구 방법을 취하였다.

과거의 기록 속에서 여성에 관한 기사를 찾음에는 극히 한정되었으니 남성 특히 통치자를 중심으로 기술되었고 여성은 가정의 테두리 속에서 남성에게 부속되어진 존재로 다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고, 어떤 사회,

1) 이인호(1980), 지식인과 역사외서(서울: 문학과 지성사) p.30.

가치에 기여한 비교적 독자적인 입장을 취한 것은 드문 실정이다. 간혹교육에 관한 것도 그 기록이 많지 않으며 잘못된 기록도 있었고 대부분이 외국선교사 간호원과 의사에 의한 보고서와 잡지에 기고된 내용이었다. 따라서 얼마 안되는 한정적 자료이므로 귀하고 또 당시 모습을 생생하게 재생시킬 수 있는 반면에 전체성과 객관성에 완벽을 기하기 어려운 점이 제한점이다.

II. 한국 전통사회에서의 여성

한국 고대사회에 있어서 여성들의 활동과 역할 등은 상당히 중요하고 높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신화에 나타나는 여성들이 護國神과 生産神으로서 숭배되어지면서 여성의 높은 관념이 삼국에 이어져왔다.²⁾

대체로 제기가 여성들에 의해 주관되어졌으며 정치적인 측면에서 직접 혹은 간접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기본이 되는 의생활과 식생활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였으며 禮越 등에서 나타나는 여성은 사유재산을 소유하고 있었다.³⁾

우리나라 여성은 삼국시대부터 올라갈수록 자아를 위한 정신이 강하게 나타나고있으며,⁴⁾ 고대국가 초기의 아내들은 빈거러운 예법이나 복잡한 명분에 매입이 없이 소박한 감정대로 행동하였다.⁵⁾

삼국시대나 고려시대에는 남아존중도 가벼웠고 아내는 협력자로서의 지위가 확고했으며 자녀교육은 주로 어머니가 담당하였으리라고 본다. 또 고려시대에는 男系嫡長子優先主義를 취하면서 女系로의 계승권을 인정하였다.⁶⁾

그런데 시대가 내려오며 따라 여성들의 모습이 많이 유교적인 강화와 불교적인 신앙의 영향을 받아 변모하게 되었다.

즉 고려왕조의 멸망, 조선왕조의 건국을 분기점으로 크게 바뀌었다. 이것은 조선왕조의 집권세력이 유교적인 사회질서를 강조했다는 사상적인 측면에서 뿐 아니

라 고려왕조가 안고있던 정치적·사회적 모순과 폐단을 극복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시정해야겠다고 본 사회적 문제중에 여성문제가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점에 있다.⁸⁾ 고려말기 이래 풍기문란이 그 직접적 원인이 되어 강화되기 시작한 여성에 대한 의율 억제와 고려 후기에 외적의 침입, 정변과 반란, 貢女제도 등으로 여성들은 차츰 위방에 숨어 버리게 되었다. 그러다가 고려말·조선초에 性理學이 들어오면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저하되기 시작하였으니,⁹⁾ 이는 유교의 사회관에서 온 것파 더불어 사회문제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여성들은 유교적인 도덕관념의 지배를 받게 되며 유교적인 婦德을 정책적으로 지극히 권장하고 엄격히 제도적으로 강요하였다. 한편 경국대전에는 남자와 동등하게 재산을 균분하여 상속받을 수 있다는¹⁰⁾ 법적보장도 있었으나 사회구조가 남성위주 즉 여성들은 남성에게 종속된 위치에 있었으며 여성들은 分家와 戶主相續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조선조 후기 일란, 호란으로 증전의 관념이 약간松动될을 볼 수 있고 그후 전통적인 신분질서에 대한 비판이 일어나기 시작했으며 기독교의 전래로 신 앞에서 만인이 평등하다는 종교이념이 전통적인 남녀차별의 유교적 관념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였다.

A. 한국여성의 일

인류가 지구위에 살기 시작하면서 들뜬 여러 형태의 상호간의 협력 속에 삶을 영위하였으리라는 것은 인류의 여러 신체적 특성과 문화유산을 통해서 잘 알 수 있다.

구석기 시대부터 개화기까지의 전통사회의 생산양식에 있어서의 특징은 공업화, 산업화 이전이므로 농업이 주산업이었다.

朝鮮女俗考에 의하면 여자가 부지런히 일해 남자에 뒤지지 않았으며 밭갈고 씨뿌리는 일에도 부녀의 조력이 태반이었다.¹²⁾ 그러나 개화기 이전까지 ‘눈는 지배

2) 삼국사기, 권 15, 고구려본기 3, 비조왕 69년 10월 참조.

3) 삼국사기, 권 1, 신라본기, 시조 혁거세 17년 참조.

4) 강영경(1980), 한국 고대 사회에 있어서의 여성의 존재 형태(서문: 숙명여대 대학원 학위논문), p.72.

5) 손인수(1977), 한국 여성 교육사(서울: 연태출판부) p.11.

6) 여성사 편찬위원회(1972), 한국 여성사 I(서울: 이태출판부) p.144.

7) Ibid, p.209.

8) 김덕희 외(1985), 한국 여성의 전통상, (서울: 민음사) p.18.

9) 손인수(1977), p.22.

10) 여성사 편찬 위원회(1972), p.309.

11) Ibid, p.473.

12) 이능화(김상익 역 1973), 조선여속고, (서울: 미양서적) p.261.

계급에 속하며 일반서민은 생을 유지하기 위해 고된 생활을 하였다. 이렇게 생활조건이 어려움에 따라 생활자재를 획득하는 일, 즉 남자의 일은 중요한 일로 인식하게 되었다. 그에 따라서 가치관이 남존여비사상을 낳게 되며 '家'를 단위로 하는 사회에서의 가부장권제도와 소유권, 사유재산제도가 결합하여 여성의 신분과 지위를 낮게 하였다¹³⁾. 또한 유교문화권에 속하는 동양에서는 여성이 스스로 행한 일을 밖으로 나타내지 않는 것이 하나의 미덕으로 되어 있으며, 우리 나라에서는 주자학이 도입된 이후 남자의業과 여자의業은 아주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었으며 양반·상인·천민이 각기 천부적인業을 타고난 것처럼 인식되었던 점도 있다.¹⁴⁾

그러므로 대부분의 여성노동력은 가족을 위한 가사에 국한되었고 사회적 차원에서의 경제활동, 특히 직장생활과는 거리가 멀었다. 유교가 사회의 지배적인 윤리로서 제반 사회생활의 기조가 되었던 이조말까지 여성은 직업을 위한 교육의 기회도 얻지 못했을 뿐 아니라 경제적권리에서도 제외되었다. 따라서 여자가 가정밖에 나와서 가사의외 일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게 생각되지 않았고 사실상 불가능했으며 간혹 여성이 직업을 갖는다 하더라도 천민계급에 한정된 것이었다. 과거 봉건사회에서의 여성의 직업은 手工匠, 칠모, 궁중의 內人, 醫女, 광대, 무랑, 官妓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들 여성들은 사회적 신분이 낮아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음에도 그들에 대한 존경은 뒤따르지 않았다.¹⁵⁾ 이것은 이조 시대까지는 농업이 주였고 산업이 분화되지 않았으므로 남성들의 경우도 직업이 다양하지 못했던 것이다.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했고, 양반계층을 중심한 胥吏職과 소수의 상업, 수공업 뿐이었음으로¹⁶⁾ 미루어 여성들은 참여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었음을 알 수 있다.

삼국시대 이후 문헌에 나타난 여성들의 직종을 보면 다음과 같다.

삼국시대에는 針線, 방직과 아울러 염색기술에까지도 상당한 수준에 달했다.

이러한 고도의 기술공이 대부분 여성이었음은 신라 직관종 많은 부분을 여성들이 담당한 것으로서 알 수 있다.

三國史記 職官志에 나타난 女性이 참여한 技能職¹⁸⁾

朝霞房母	23人	紅典母	6人	漂典母	10人
染宮母	11人	蔴芳典母	6人	針房女	16人
疏典母	6人	纈染典母	6人	綺典母	6人

朝鮮女俗考에 나타난 여성의 일은 韓濊시대 이후 朝鮮시대에 이르기까지 농사짓기, 누에치기, 비단짜기, 배짜기를 하였고 독좌씨가 보급된 이후 남자는 발갈고 씨뿌리며, 여자는 옥좌좌고 씨앗기, 솜타기, 실뿜기, 무명짜기 등을 하였다. 특히 이조이래로 女工品에 대한 명나라와 청나라의 기록을 보면 조선에는 모시와 명주, 배 등이 특산되며 여자의 공력으로 된 산물임을 기록하고 있다.¹⁹⁾

1. 특수직의 여성

상기한 바와 같이 한국의 여성은 근세에 가까울수록 사회에 참여하여 독자적인 활동이나 능력을 발휘할 기회가 거의 없는 반면 특수한 사회적 지위를 누리며 그 직에 종사한 여성들이 있었으니 고려시대와 이조시대에 이르러 다음의 직업이 이에 해당된다.

a. 宮女

고려사에 나타나기는 혜종 때 부터이며 조선시대에 이르러 규정이 마련되었고 세종 10년에 계도를 정했다. 고려시대에는 평민, 하루계급 출신으로 궁중에서 의식주생활을 관할하였고 궁중음악도 담당하였다. 그러나 중인출신의 소생은 7품으로 한정되는 제약이 있었다.²⁰⁾ 조선시대에는 경 5품상급 이하의 중인직을 가진 여성으로 넓의 의미에서는 무문제로 궁중에 종사한 水腸을 포함한다. 10세 이상 여성으로 한글·小學·女四箴·예절, 말하는 법, 글쓰기, 기거동작, 궁중용어, 한글 궁체쓰기 등의 교양을 갖추었다. 이들에 대한 행동제약을 차츰 완화했으나 혼인을 금하고 궁중의 일을 누설하는 것은 엄히 금했다. 또한 국가의 명령에 의해 出宮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와의 접촉을 단절한

13) 이난덕(1975), 전통사회와 여성의 힘, (서울:이대출판부) p.10.

14) 박용후(1984), 한국 근대 여성사, (서울:경음문화) p.9.

15) 이호재, 정주숙(1982), 한국 여성의 지위, (서울:이리출판부) p.141.

16) Ibid, p.142.

17) 여성사 진찰위원회(1972), p.146.

18) Ibid, p.147. 제인송.

19) 김상여 역(1973), pp.261~273.

20) 여성사 진찰위원회(1972), pp.263~265.

책 생활해야 했고, 따라서 어두운 정신생활만이 『雲英傳』에 반영되고 있다.²¹⁾

b. 妓女

기녀는 巫女로부터의 발생과 婢子로부터의 발생설이 있으며 고려이전의 기녀로는 천관(김유신과의 일화) 이외에는 기록을 찾기가 어렵다. 그러나 고려왕조 사록에 의하면 이들은 사회적으로 확실한 신분계층을 형성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技藝와 웃음과 快으로 삶을 유지하는 직업적 생활인으로 역사적으로는 고려이전에 형성되어 고려시대에 발전되고 조선시대에 이르러 성숙되었다고 볼 수 있다.²²⁾

고려시대에는 신분은 천하였으나 문인과 접촉하며 시조를 읊고 팔관이나 연등같은 국가의식에도 참여하였다. 특히 그들은 신라의태의 鄉樂을 보유·계승하여 전통예술보존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²³⁾

조선시대에도 신분은 천인이었으며 제도적으로 관청에 소속되어 있었다. 당시 사회가 남여의 상편을 금하는 유교적 질서 속에서 자연히 남성들의 접근이 허용될 수 있었으므로 차츰 사대부와 군사들의 위안부 구실을 하게 되었다. 따라서 도덕을 중시하는 초기부터 기녀의 폐지에 관한 논의가 거듭되었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연산군 시대에 이르러는 큰 사회적 문제로 되어 中宗反政으로 폐제되었으나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 말기까지 존속하였다. 이 기녀들은 한편 조선시대의 여성 중 가장 자유롭게 어느 곳이나 출입하였고 담고담이나 소설(훈향전, 배비장전, 속향전 등)의 여주인공으로 등장하여 다양한 여성상을 보여주었으며, 주어진 악조건을 극복하면서 최선을 다하였다.²⁴⁾²⁵⁾

c. 巫女

한국의 土俗 신앙으로서 삼국시대 이전부터 내려온 巫俗신앙은 고려에 들어와서는 국가적인 후원을 받는 불교와 각하여 어느 때보다도 사회에 깊이 내재하였고 성행하였다. 무속신앙이 악마를 쫓고 인간에게 복지를 가져온다는 것에 기초한 것인만큼 신행과 직접 상통하는 무녀의 존재가 두드러지고 활동이 활발하였다.

巫는 治病者로서도 기능하였다. 高麗圖經에 고려 사람들은 병이 나도 약을 먹지 않고 오직 구신을 섬김으로써 신의 저주를 푸는게 齋俗이라고 기록되었으며 이 일을 무녀가 담당했다고 본다. 齋巫로서의 역할은 민간 뿐 아니라 왕실에서도 그 영험함을 믿어 대접하였고 국사를 단판 무당과 논했다. 따라서 司祭로서 齋巫로서 예언자로서의 능력을 지닌 무녀들의 사회적 역할은 중요하였으며 공적인 행사에 참여하여 스스로의 능력을 발휘했으나 풍속이 분란하고 사회적 폐가 있어 齋巫의 여론도 있었다.²⁶⁾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 유교를 경치·교육의 기본이념으로 채택하고 있으므로 불교나 무속신앙에 대해서도 배척운동이 일어나고 있었다. 그럼에도 조선왕조를 거쳐 근대사회에도 큰 세력을 떨치며 우리 민족의 의식구조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²⁷⁾ 세종 13년 전후에는 무녀들을 성 밖으로 축출하고 野祭와 淫祀금지조치 등을 했으나 무속이 수그러들지 않았다. 그것은 정적과는 달리 국가에서 인정하는 國巫가 있었으며 왕이나 왕세자의 질병치료에도 의원과 함께 임하도록 했다. 또 세금을 받고 전염병이 들 때 이들로 하여금 치료활동을 하게 한 점 등이 무녀의 완전폐지를 망설이게 하였다.²⁸⁾ 이처럼 무녀들은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c. 醫女

의녀는 男女有別이란 조선시대의 유교적 질서속에서 여성환자가 생겼을 경우에 남자의원이 여성환자를 직접 진찰하고 치료할 수 없는 불편을 덜기 위해 생긴 것이다. 다른 특수직 여성들은 前代에도 존재하여 계승되었던데 비해서 의녀는 조선왕조에 들어와 처음으로 설치되었다.²⁹⁾ 태종 6년에 濟生院에 설치(후에 惠民局에 병합)되었다. 처음에는 물을 가르치고 脈經, 針灸術, 藥餌法을 가르쳤다.

세종조에는 監醫를 겸하여 강의받고 주로 부인들의 질병치료와 산부인과적 치료, 환자를 돌보았다. 그런데 직업적으로 의부의 남성들과 접촉할 기회를 갖게 되므로 보수적 전통의 양반은 물론 중서제급의 자녀들

21) Ibid, pp. 504~517.

22) 이경복(1988), 『고려시대 기녀 연구』,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간행회) p. 18.

23) 여성사 편찬위원회(1972), pp. 271~279.

24) Ibid, pp. 518~532.

25) 이옥수(1985), 『한국 근세 여성사화』(서울: 글문각) pp. 98~102.

26) 여성사 편찬위원회(1972), pp. 266~270.

27) 이능화(1976), 『조선 무속교』(서울: 백룡출판사) p. 11.

28) 여성사 편찬위원회(1972), pp. 549~555.

29) Ibid, p. 310.

도 본직에 종사하기를 꺼려 초기부터 하류에 속한 노비 출신으로 선발되었다. 그러나 그 업무가 부인 등의 질병을 진료하는데 있었으므로 권장되었다. 한편 이러한 초기의 활동과는 다른 양상이 연산군 이후에 나타났다. 의녀를 기녀들과 함께 연회에 참석시키게 되어 사회적 대우는 더욱 천시되고 업무에도 지장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후 연회 참석 등을 금한 때도 있었으나 정조 시대에 藥房妓生이라 불리웠던 점으로 미루어 조선조 후기에는 그 기능이 상당히 변화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당시 사회적 환경으로 여성인 의녀들이 부호가들의 결혼식 물품검색, 사대부가내의 죄인들을 검거하는 일 등을 대행하였다.³⁰⁾³¹⁾ 이상에서 살펴본 바 특수한 분야에 활동하는 여성들이 당시 어려운 사회여건에서 활동하였으며 의녀의 경우는 남성만의 의뢰분야에 여성이 활동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이들에 대한 제도적인 운영이 고려후에는 실현되지 못했고 이조시대에 이르러 체계화하고자 하였다. 또한 견출된 능업이나 그밖에 직중에 종사한 여성들의 경우는 중서인층에 속하나 특수직 여성들은 다수가 천민출신으로서 그들이 사회에 기여한 것에 비하여 존경은 커녕 개화기에 이르러서도 여성들이 사회활동을 하도 직업에 종사하는 일을 극히 꺼리는 경향을 보이게 되었다.

B. 한국 여성의 교육

우리의 교육사를 돌이켜 볼 때 학교 교육은 이미 삼국시대—고구려 제17대 소수림왕 2년—에 최초의 학교로 太學이 세워져 시작되었다. 그러나 귀족 자체의 교육기관이며 관리양성기관이었다. 이러한 학교 교육은 신라의 國學, 고려의 國子監, 조선시대의 成均館을 비롯한 각종 학교에 이르기까지 유교정신에 입각하여 거의 19세기 말까지 우리나라 교육을 지도하게 되었다.³²⁾³³⁾ 조선시대에는 초등교육기관으로 각 지방의 黉堂, 중등교육기관으로서 서울의 四學, 지방에는 鄕校가 있었으며, 고등교육기관으로는 成均館이 한국교육을 주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기관은 남성을 위

한 것이지 여성을 위한 것은 아니었으며 조선시대나 그 前代에나 마찬가지였다.³⁴⁾ 한편 이것은 한국교육사에서만이 아니라 서구에서도 여성교육기관이 제도적인 면에서 거의 19세기 중엽에 이루어진 점으로 보아 전근대적인 사회에서는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1. 조선시대까지의 교육

고조선시대의 교육에 대해 고증할 문헌이 아직은 발견되지 않고 있으나 윤리적인 가치추구와 교육적 작용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³⁵⁾ 삼국시대에는 고구려의 경우 太學이 설립되어 귀족자제를 교육시켰고 백제는 학교를 세웠다는 문헌상의 기록은 없으나 기록에 博士의 명칭이나 중앙관제의 內法佐平으로 미루어 교육이 있었음을 시사한다. 신라는 화랑도 교육을 했으며 초기의 源花가 여성이었음을 알 수 있다. 통일신라 시대에는 國學을 설치하여 교육하였다. 고려시대에는 학교와 학원을 설립하고 지방교육을 위해 신라 당시의 국학을 그대로 두었으며 성종시대에 이르러 국가적으로 제도를 바꾸어 國子監을 설치하였고 그외에도 鄕校가 설립되고 사학기관이 있었다. 후기에는 교육한 교육기관으로 학당이 있었다. 조선시대에는 최고학부의 국가교육기관은 성균관이 있었으며 이에 예속된 교육기관으로 오늘의 중·고등학교에 해당하는 四學이 있었다. 태종시대에는 戶口 500을 원칙으로 향교를 설립하도록 하였다. 또한 지방의 서민 자제들의 교육은 서당에서 실시되어 사학이나 향교에 입학하는 준비과정이었다. 한성에서는 잡과—한학, 의학, 천문학, 지리학 등—교육이 있어 중류계급 자녀들이 학습하였다.³⁶⁾³⁷⁾

이상의 여러 교육기관은 유학교육으로 맥을 같이 하고 있으며 대부분 관리 양성에 그 목적을 두는 등 남자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조선시대에는 유교적 정치원리와 도덕규범에 의한 가부장제의 봉건국가로서 유교의 엄격한 ‘三綱五倫’의 윤리관으로 男女有別의 綱目을 내세워 여성을 규방에 유폐하고 ‘三從之道’를 강요하였다. 따라서 여성교육기관이 오직 德育만을 강조하였으므로 非形式 교육인 가정교육이 그 전부였고 교육기관을 통한 形式 교육의

30) Ibid, pp. 533~548.

31) 김부흥(1975), 한국외학사(서울: 탐구당) pp. 431~434.

32) 김용일(1984), 한국 교육사(서울: 숙명여대 출판부) pp. 30~74.

33) 차석기, 신천식(1985), 한국 교육사 연구(서울: 개원문화사) pp. 39~164.

34) 손인수(1977), p. 51.

35) 三國志 魏書東夷傳滅新羅條에 箕子八條教 참조.

36) 김용일(1984), pp. 88~89.

37) 차석기, 신천식(1985), pp. 164~189.

기회는 없었다.³⁸⁾³⁹⁾ 즉 남자에게는 사회생활과 직업수행을 위한 광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케 하기 위한 학교교육을 시키고, 여자에게는 가정 내에서 가정생활과 자녀교육에 필요한 婦德을 기르고 家事的 관리와 기술을 위해 가정교육 내지 생활교육을 시켰다. 그러므로 한 인간의 인격을 도모하고 지적능력을 개발하는 교육이 아니라 학문적인 면은 소홀히 하고 그 교육내용 역시 유교의 영향으로 편협된 점이 많았다. 따라서 여성을 일방적으로 貞淑과 忍苦, 犧牲의 존재로 만들어 여성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계획하고 실천하고 책임질 수 있는 소지와 의식을 상실케 하고 있었으며⁴⁰⁾ 이러한 전통적 여성 교육관이 개화기는 물론 오늘날까지도 지지 않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2. 근대 여성교육의 성립과 직업교육

우리나라의 여성교육이 지도적 교육기관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학문을 익혀나가게 된 것은 개화기에 들어서면서 근대화과정과 함께 비로소 시작되었다.⁴¹⁾⁴²⁾

개항을 전후해서 제기된 나라에서의 교육개혁의지는 1883년 개화과 관리에 의해서 개항장인 원산에 원산학사가 정부의 협조를 얻어 개교된 것으로부터 育英公院을 설립하는 등 교육정책의 조정과 결단을 보이고 있다.⁴³⁾ 이후 1895년 초등교육관계가 정해지고, 국민교육의 기초와 생활지식을 위하여 소학교, 1899년에는 중등교육에 대한 관계가 정해졌다.⁴⁴⁾ 한편 고등으로부터 교육과 의료사업의 유희를 받은 기독교선교부에서는 선교사들을 파견하였다. 이들 선교사들은 이 땅에 오자 성경말씀에 따라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고(teaching), 복음을 전파하며(preaching), 모든 병들고 허약한 사람들을 고쳐주는(healing) 것으로 포교사업을 시작하였다.⁴⁵⁾⁴⁶⁾ 따라서 교육을 통해 계몽되고 서양의 근대문화를 소개받고 근대교육의 원리는 물론 여권신장 및 신식 생활방식을 수용하게 되었다. 특히 여성교육을 반대하던 상황에서 신교육을 인정하고 관심을 두

기 시작한 것은 기독교의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서구의 근대교육을 직접적으로 수용하게 된 것은 1884년을 기점으로 한 선교사들의 來陸트 부터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기독교 선교사들에 의해 선교사업의 일환으로 도처에 근대사립 학교가 설립되었다. 근대 학교의 효시는 1883년 정부의교고문 P.G. von Moellendorf와 T.E. HAifax에 의한 외국어 전문학교 通辨 학교의 설립이며, 일반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는 1885년 H.G. Appenzeller가 설립한 배재학당이 최초의 사학기관이다. 또한 1886년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여학교 이화학당이 여성교사 M.F. Scranton에 의해 설립되기에 이르렀다. 이후 1910년에 이르기까지 1908년에 설립된 관립한성여자고등학교를 제외하고는 모두 사립학교였다.⁴⁷⁾

여성을 위한 직업교육은 근대 여성교육이 성립된 후에도 전통적인 여성교육관과 사회관이 유지되고 있던 당시 상황에서는 특기할만한 것이 없다.⁴⁸⁾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학교관계인 한성사범학교 관계가 1895년 공포되고 최초의 교사양성기구로 한성사범학교가 있었다. 1899년 3월에는 의학교 관계가 발표되었고 의학교육은 이미 1885년 광혜원에서 시초를 찾을 수 있고 경성의학교는 1899년 정부에 의해 설립되었다. 1899년 6월 상공학교관계(1904년 6월 농상공학교 관계)가 발표되고 상공학교에서는 농·상·공업 을 가르쳤다. 曠務 학교는 1900년에 설립되고 당시 법원이었던 平理院 안에 1895년 법관 양성소가 생겼다.⁴⁹⁾⁵⁰⁾ 그러나 이상의 여러 실업, 사범학교는 모두 남자들을 위한 학교이며 여자를 위한 학교는 없었다. 당시 여성들의 직업진출을 보던 우선 여자 직장으로 한국정부 典圖書에서 최초로 지폐를 만들 때 15명을 모집하였고 이후 취업이 증가했으며 사무직으로는 1909년 최초의 여사무원 모집을 했다.⁵¹⁾ 전문적으로는

38) 신재경(1985), 한국 개화기의 여성교육에 관한 연구, (서울: 건국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40

39) 엄동윤(1984), 조선 시대의 여성교육에 대한 일 고찰, (서울: 성균관 대학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3.

40) 손지수(1981), 조선시대 여성 교훈서에 관한 연구, (서울: 성균관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 121.

41) 김영남(1982), 개화기 여성 교육에 관한 소고, 경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6.

42) 허 박(1984), 한국 개화기의 기독교계 여학교의 여성 교육에 관한 고찰, 성균관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3.

43) 이원호(1982), 개화기 교육 정책의 사적 연구, 동아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 11.

44) 김응일(1984), p. 125.

45) 김홍대(1973), 한국 근대학교와 여성 교육에 관한 연구, 연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49.

46) 손인수(1977), pp. 213~216.

47) 김홍대(1973), 한국 근대 학교와 여성 교육에 관한 연구(서울: 연세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17~27.

48) 허동욱(1974), 한국 근대 여성 직업교육의 사적 고찰(서울: 고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65.

49) 김응일(1984), pp. 127~131.

50) 차석기, 신천식(1985), pp. 302~325.

51) 메한린보, 1909년 10월 17일자.

1889년 이경숙씨와 1896년 허란사, 윤정원씨가 여교사로, 1900년에는 박에스터가 여의사가 되었다.⁵²⁾⁵³⁾ 그러나 이들은 모두 국내의 교육기관에서 배출되지 않았다. 또한 매기, 황선부인, 마르다, 그레이스 등이 보구여관 초기 간호원으로 기록되어 있으나,⁵⁴⁾ 간호교육이 시작되기 이전으로 기독교인 여성 중에서 활동하였던 것이다.

III. 한국에서의 간호교육

현대 간호학은 신문학과 더불어 선교선교사들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전문직으로서 일반 여성을 위한 교육과 시기를 거의 같이하여 실시하였다는 것은 가히 획기적이라 할 수 있다.

간호학이 정규교육과정으로 실시되기 이전에는 영국 성공회를 통하여 Emily Heathcote와 Elizabeth Webster가 최초의 서양인 간호원으로 봉사했다. 그후 노르웨이 태생의 Anna P. Jacobson이 미국 강노교 해외선교부 파송으로 제중원에서 헌신적으로 일하다가 이곳에서 사망했다.⁵⁵⁾⁵⁶⁾ 이에 대해 1897년 1월 21일자 독립신문이 「美女殉職」이란 제목하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병원도 업고 병인 간점홀 줄도 모르는 인민에게 보내 주면 죽어 썩을죽음과 비운 학문을 이 불쌍한 녀성들을 위하여 허비하겠노라고 경훈즉 교회에서 이 부인을 조선 시을 강노교회 제중원 병원으로 보내야 거그서 삼년 동안을 조선 녀성을 위하여 쥬야르 고성 학교 병든 사림들을 착실히 녀헛볼 무고 구완할야 주며 조흔 말과 울흔 교를 보논 사림마다 녀너 주어 죽는 사림의 피우들을 위로하고 산 사림의 형실을 울케 마르치며 세계 구쥬 예수크리스드씨 일흔을 조선에 빛나도록 일을 하다가……이 부인은 조선에 잇는 이브라는 피우 죽락이나 조선 인민의게는 크게 손하라…」⁵⁷⁾

Jacobson의 후임으로 Esther L. Shields와 보구여관에는 Ella Lewis가 선교사로 내한하였다. 그러나 이때까지는 한국인에게 간호교육을 실시하지 못하고 이러한 서양선교사의 지시에 따라 기독교인 여성들이 보조자로서 일했다.

A. 간호교육기관의 설립

한국에서 간호교육이 실시된 것은 서양인 선교사들이 의료사업을 시작한지 20년이 가까운 1903년 경동의 부인병원(—扶救女館—)에서 간호교육을 목적으로 감리교여성혜의선교부에서 파견된 Margaret J. Edmunds에 의해 한국 최초의 간호원교육기관이 설립되었다. 또한 이미 1898년에 내한하여 봉사하던 Esther L. Shields에 의해 세브란스병원에 설립(1906년) 되었다.⁵⁸⁾

1903년 당시 일반 여성교육기관으로는 서울에 세화교(이화학당, 정신여학교, 배화학당), 평양에 두 학교(정의, 승의여학교), 등래 일신여학교, 무포 경명여학교가 있는 정도로 극히 소수의 여성만이 교육을 받고 있었다.⁵⁹⁾ 그러므로 초기 입학생은 보구여관의 경우 김마르다와 이그레이스 등 병원에서 보조역할을 하던 기독교 여성들이었고 세브란스의 경우도 유사하였으리라 생각된다.⁶⁰⁾ 따라서 기독교인으로 부모 동의서와 교회추천서 의사진단서를 첨부하도록 했으며 20세 이상의 여성들로 징구과정은 6년, 단기는 3년 과정으로 입학하였다.⁶¹⁾ 도중에 탈락자도 많아 초기 두 기관의 경우를 보면 보구여관은 6명이 입학하여 2명, 세브란스는 5명이 입학하여 1명이 졸업하였다.⁶²⁾

1. 교과과정

보구여관 간호학교(양성소)의 경우를 예로 들면 간호원의 자격, 인체골격, 순환, 혈액검사, 병원규칙, 껌질, 필상, 필상 만들기, 환기, 수술준비, 저명인사의 일생회고(첫 해의 교수과목이며 다음해에는 응급, 치과, 식이요법, 산과, 해부, 나이팅게일생애, 다음해

52) 이효개, 김주숙(1982), p. 142.

53) 정충량, 이효재(1973), 일제하 여성 노동자 취업 실태와 노동 운동에 관한 연구, 한국 문화연구원 논총 제22집 pp.314~316.

54) Mary M. Cutler (1899), Poku Nyokwan, Korea Woman's Conference, Annual Report p.26.

55) 이영복(1986), 간호사(서울: 수문사) pp.157~158.

56) 이귀향(1966), 한국간호교육변천에 관한 연구(서울: 연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9~12.

57) 독립신문, 1897년 1월 21일자

58) Christian Literature Society, The Korea Mission field, Vol.12, No. 1, p.25.

59) 손인수(1980), 한국 개화 교육 연구(서울: 인지사) pp.76~77.

60) 공정자(1967), 간호직업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10~29.

61) M.E.H. (1916), Training Nurses in Chosen. K.M.F. pp.25~27.

62) 이영복, p.162.

에는 위생, 이비인후과, 열, 수술, 의과드레싱준비 등을 학습하도록 되어 있었다. 실습은 초기에는 12시간 근무제로 하여 강의와 실습을 병행하였으며 내용은 붕대법, 침상단들기, 목욕법, 주약, 간단한 식이준비, 활력증상측정, 증상기록, 특수약물투여, 세척, 찔질, 드레싱, 약도포마사지원리, 사후처치 등이었다.⁶³⁾ 그 후 의학과목이 더욱 세분하여 첨가되고 간호학과목도 늘어났으며 이러한 전공 이외에도 성경, 음악, 산수, 국어, 한문, 영어 등을 배웠다.

2. 교육이념

초기 한국에서 실시된 기독교계 간호교육의 이념은 설립자들이 선교사 간호원이므로 기독교 복음을 기초로 하였다. 따라서 기독교인 간호원을 양성하는데 있었다.⁶⁴⁾ 특히 선교사들은 일찌기 민족과 국경을 초월하여 사랑과 봉사하는 실천을 보임으로써 일찌기 그 정신을 한국 간호원에게 심어주었다. 특히 모든 환자들의 육체적 욕구와 마찬가지로 영적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⁶⁵⁾ 한편 기독교계 여학교에서는 「한국적 여성」과 「기독교적 여성」의 두가지 속성을 갖춘 기독교적 한국 여성의 배양에 있었다.⁶⁶⁾

3. 교육방법과 교과서

교수의 수가 적고 교과서가 부족하며 언어장애로 인하여 주로 bedside instruction, 칠판 사용, 동료선교사의 도움을 받아 실시하였다.⁶⁷⁾ 교과서는 거의 없는 상태로 이화학당의 Paine과 Frey 선생이 한역한 생리학이 유일한 교과서였다. 그후 고열환자간호와 환자식이조리법을 Mrs. Hahr의 도움으로 번역하여 팜플렛 형태로 인쇄하였으며 의과목의 교육내용과 미국의 간호학서적을 번역하고 있었다.⁶⁸⁾ 한편 정부에서도 갑오개혁이후부터 교과서 편찬의 중요성이 제기되었으며, 광무기에 접어들면서 학부가 편찬한 교과서가 출판되고 있었다.⁶⁹⁾

실습교육은 초기에 특히 어려움이 많았으니 현대식 병원에서의 가구와 여러 기구 불품 등이 익숙치 못한

이외에도 환자를 돌보기 위해 24시간제도가 실시되어 야합에 따른 시간 개별의 차이, 청결이나 순종 등에 대한 인식의 차이, 또한 여성의 사회활동 등에 대한 편견 등으로 어려움이 많았다.⁷⁰⁾ 그러나 학생들은 일학후 수습과정을 거쳐 선발되어 제복을 입고 환자간호에 열과 성을 다했고 학과목 공부도 아울러 해야 하므로 소등시간이 다 되도록 학습했다. 한편 초기에 두기독교계 간호학교에서는 두 병원의 강정을 살려가면서 서로 협력을 아끼지 않았으니 세브란스의 Shields 소장은 특히 수술실 실습과 강의 등을 도왔다.⁷¹⁾

B. 간호교육의 판련활동

1. 가관식

한국에서 최초로 있었던 가관(capping) 행사는 보구여관 간호원양성소 학생들에게 1906년 1월 25일(구정)에 실시하였다. 보구여관 대기실에서 양국 국기를 꽂은 가운데 내외국인 여성들이 참석하고 거행했으며 이날의 사회는 이화학당의 Scranton 선생님이 하셨습니다. 예배순서로 진행되어 Cap을 Edmund가 수여하고 의사와 간호원들의 합창과 축도로서 간호학생들의 전문적 교육을 격려해 주었다.⁷²⁾ 1907년에 있었던 2회 가관식은 정동교회에서 보구여관 간호원양성소와 세브란스간호원양성소 두 학교가 함께 실시했다.

이 행사는 간호교육과정 중에 거행되는 행사라는 점 이외에도 당시 사회에서는 크게 주목되고 있었다. 축도자는 남성의 상징이며 어린 소년은 쓸 수 없고 성년이 되어 상대한 예식과 더불어 베풀어지는 것이었다. 그외에도 결혼, 장례와 종교예식 등의 의식에서 쓰이는 것이었기 때문에 서양에서보다 한국에서 여성들에게 시행된 가관식은 더 큰 의미로 갖는 것이었다.⁷³⁾

2. 제복과 명칭

간호학교가 설립된 후 한복이 불편하여 적합한 제복을 마련하고자 하여 이화학당의 Miss Paine의 도움을 받았다. 종래 한복과 양장을 복합하여 개조한 복장으로

63) M. Cutler, M. Edmunds, PokuNyokoan, The Korea Woman's Conference, 1905, June p.62.

64) Edna Lawrence (1928), Problems in the Proparation of Christian Nurses, K.M.F. Vol. 24, No.4, p.71.

65) M. Cutler, M. Edmunds (1904), K.W.C p.11.

66) 손인수(1977), p.229.

67) M. cutler, M. Edmunds, (1905) K.W.C. p.62.

68) Alta Morrison (1910), Nurses Training School, K.W.C. p.24.

69) 이원호(1982), pp.131~133.

70) 간호대학사 편찬위원회(p1986), p.30.

71) E.L. Shields (1907), Co-operation in Training Nurses, K.M.F. Vol.3, No.1, p.10.

72) M. Cutler, M. Edmunds (1906), K.W.C. p.22.

73) G.H. Jones (1907), The Capping of the Nurses, K.M.F. Vol.3, No. 4, p.49.

로서 활동에 간편을 기했다.⁷⁴⁾

환자를 돌보는 직업을 가진 여성 즉 nurse에 해당하는 한국 명칭이 없어 한문을 사용하여 간호원이라고 칭하였다.

看은 'to take charge of; watch over' 護는 'to aid; protect and guard', 그리고 員은 'a member'의 의미를 가진다. 이외에도 학생들에게 그들의 임무를 알리기 위해 일련의 규정 필요하므로 역시 한문을 빌어서 kyu chik chak(규칙)이라고 번역하여 사용하였다.⁷⁵⁾

3. 견학 활동

외국의 기관을 방문하는 기회도 가졌다. 1906년 보구여관의 Edmunds와 2명의 간호원(간호학생)은 일본의 Nagasaki, Omeru와 Kokura의 육군병원과 민간병원 및 여성해외선교부 여학교와 맹아학교, 그의 기관을 방문후 귀국하였다.⁷⁶⁾ 이러한 기회는 당시 어느 학교에서도 실시하지 못했던 것으로 초기부터 외국의 의료 및 교육계를 관찰할 수 있었다.

C. 간호교육과 사회

1. 사회에서의 여성인식

여성잡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간호학교를 소개하고 있다.

〈보구여관과 그 안에 잇는 간호원양성학교〉

서울 대정등에 보구여관이라는 녀병원이 잇는데 각 식별된 녀인들을 지성껏 잘 보아주며 또 그 병원안에 합설한 간호원양성학교가 잇으니 이 학교에서는 달혼 학교와 마티 디지 렉스 마튼것을 가르치는 학교가 아니라 총민한 녀자들을 쏘아 각식 병 치료하는 법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형하여 시시로 배호케하며 병중류를 낚고도 일등분을 분별하여 열심으로 가르치며 그 외에도 여러 고명환 의원과 선심을 정하여 조흔 공부란 만히 식이더라. 그 슈장하는 이의 말을 들은즉 주지들은 대한 절몬 조흔녀자들을 위하여 이러케 공부하게 하였으니 잇던녀자들지 와서 공부하기를 시험하여보고 주지 의향에 어렵던지 소원에 합당치못하면 공부할수업다 말하고 가도 관계찬라하니 우리나라에서 이런 공부를 하면 달혼 나라에서보다 더 귀하고 조켓

으니 장성할 녀자들과 절브신녀인들은 조은 세를 허송치말고 이런 학교에 만이가서 시험하여보고 공부란 부즈런이 하여 우리나라 여인들도 마티조흔 일들을 만히 하기 바라노이다.....⁷⁷⁾

이상의 글이 실린 잡지는 신빙회소속상동청년학원내 가정잡지에서 간행된 여성종합지 「가정잡지」이다. 이 기고 내용만으로 사회 전반의 시작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어려운 당시여건에 비하여 긍정적인 일면을 보이는 것이다.

2. 졸업생 활동

병원수가 증가됨에 따라 요구는 많으니 졸업생의 수가 적었으며 졸업간호원에 대한 대우가 좋았다. 두 기관에서 배출된 1회 졸업생 3명의 경우를 보던 다음과 같다.

김마르다는 보구여관간호원양성소의 1회 졸업생으로 보구여관에서 간호원으로 근무하면서 후배들에게 General Nursing을 가르쳤다. 그후 선교사간호원의 뒤를 이어 간호부장을 역임하는 한편 병원선교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였다.⁷⁸⁾ 김배제는 세브란스간호원양성소 1회 졸업생으로 한국 최초의 여의사 박에스터의 동생이다. 5명의 입학생 중 유일한 졸업자이기도 한 그는 훌륭히 그 업무를 수행했으며 후에는 부산에서 활동하였다.⁷⁹⁾ 이은혜는 초기 기록에 그레이스로 표기되어 김마르다와 같이 졸업했다. 보구여관에서 있다가 평양에 Hall의사 기념병원에서 근무하였고 'Wesang' 시험에 합격하여 의사가 되었으며 복음을 전하고 헌신적으로 봉사하였다.⁸⁰⁾

이상에서 몇가지 면으로 살펴본 초기의 간호교육은 처음에는 어려가지 난제가 많았다. 그것은 우선 여성에게 교육의 기회가 극히 적었다는 점과 여성들의 사회에서의 직업활동에 대해 좋지 않은 인식이 절대적이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수고와 노력끝에 간호전문직을 낮은 직업으로 보던 사회의 태도가 변화되어 의사, 교사와 같은 부류에 속하며 절명파 재해시에 돕는 사람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또한 당시 간호교육을 한국의 여성을 위한 가장 보람있는 일로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⁸¹⁾고 기술되었다.

74) M. Cutler, M. Edmunds (1904), K.W.C. p. 10.

75) Ibid, pp. 10~11.

76) M. Cutler, M. Edmunds, (1906), K.W.C. pp. 13~14.

77) 가정잡지 제 1년 제 4호 p. 31.

78) Alta I. Morrison (1910), K.W.C. p. 25.

79) Esther, L. Shields (1922), Korean Graduate Nurses, K.M.F. Vol. 18, No. 7, p. 160.

80) Lura M. Smith, (1940), Korean Nurses—Then and Now, K.M.F. Vol. 36, No. 3, p. 52.

81) Methodist Episcopal Church (1908), Minutes of the Korea Annual Conference, Seoul, pp. 22~23.

IV. 맺음말

우리 나라에 있어서 근대 교육의 성립발전은 19세기 중엽부터 내재적으로는 실학과 연결된 개화사상과 외적으로는 개항이후 외세의 영향을 받았다. 특히 한국의 여성교육은 개화기에 들어서면서 비로서 형식적이고 적도적인 교육기관을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뒤이어 현대 간호교육이 실시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여성에게 교육기관을 통한 교육이 실시되기 이전 한국사회에서의 여성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한국 여성의 일 특히 직업양상과 교육을 살펴보고 개화기의 한국 여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기독교계 간호학교(양성소)를 중심으로 자료를 근거하여 고찰하였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 파악된 것은 아래와 같다.

첫째, 우리나라 고대사회는 여성의 지위가 상당히 중요하고 높았으나 고려후에서 이조시대에 들어오면서 사회문제 해결과 유교적 이념의 사회질서가 확립되고 사회구조가 남성위주의 여성은 종속된 위치에 있도록 제도적으로 강요되었다.

둘째, 대부분의 여성노동력은 가족을 위한 家事에 국한되었고 사회적 차원에서 경제활동 특히 직장생활과는 거리가 멀었다. 즉 이조까지의 봉건사회에서는 하류층 여성은 남편이 종사하는 노동에 대부분 참여하였고 천민계층의 여성들이 특수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으며 개화기 이후 여성이 교육기회를 얻게됨과 동시에 산업구조에도 변화가 생겨 여성도 직업을 갖는 기회가 주어졌으며 이조말에는 직공과 소수의 사무직이 있었다.

셋째, 우리 나라에서 실시된 形式敎育은 이미 삼국시대에 시작되었으나 모든 교육기관이 남성을 위한 것으로서 男女有別의 유교적 관념이 뿌리깊은 가운데 여성들에게는 오직 懿育만을 강조하였으므로 非形式的인 가정교육이 전부였다.

넷째, 우리 나라의 여성교육이 제도적 교육기관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학문을 배우게 된 것은 개화기에 들어서면서 근대화과정과 함께 시작되었고 기독교사상에 영향을 크다.

다섯째, 개화기 이후 1910년대까지는 여성들의 전문분야별 활동이 부각되지 않았다. 단지 몇몇 여성 선각자들이 전통적인 여성관을 탈피하여 새로운 방향을 보여주므로써 새로운 여성활동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여섯째, 여교사와 여의사가 최초의 전문인으로 활동

하였으나 이들은 한국의 교육기관에서 교육되지 않았으며 여성전문직교육으로 최근에 실시된 것은 간호교육이었다.

일곱째, 개화기 이후 여성을 위한 교육기관이 설립되고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증가했어도 진근대적인 가치관이 여성의 사회적 활동을 제약하고 있던 상황에서 간호교육이 실시되었다.

여덟째, 간호전문직은 초기의 사회에서의 태도가 변화되어 질병과 재해시에 돕는 사람으로서 인식되고 한국 여성을 위한 보람된 일로 평가되었다.

이상에서와 같이 현대간호가 한국에 도입될 당시의 사회상과 새로운 학문으로 소개되어 성립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우리 민족의 오랜 문화와 더불어 존재했을 것으로 사료되는 한국 전통의 간호도 史料를 발굴하여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단행본>

- 간호대학사 편찬위원회, 이화여자대학교 간호대학사
서울, 천봉인쇄소, 1986.
- 강영경, 한국고대사회에 있어서의 여성의 존재 형태,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0.
- 김두중, 한국의학사, 서울, 탐구당, 1975.
- 김열규 외, 한국 여성의 전통상, 서울:민음사,
1985.
- 김영남, 개화기 여성교육에 관한 소고, 경희대 석사
학위논문, 1982.
- 김용일, 한국교육사, 서울:속대출판부, 1984.
- 김주숙, 이효재, 한국 여성의 지위, 서울:이리출판
부, 1982.
- 김홍대, 한국 근대학교와 여성교육에 관한 연구, 연
대 석사학위논문, 1973.
- 박용숙, 한국 근대 여성사, 서울:경음문고, 1984.
- 손인수, 한국 여성 교육사, 서울:연대출판부 1977.
- 손인수, 한국 개화교육연구, 서울:일지사, 1980.
- 손직수, 조선시대 여성교훈서에 관한 연구, 성균관
대학 석사학위논문, 1981.
- 심재경, 한국 개화기의 여성교육에 관한 연구, 건국
대학 석사학위논문, 1985.
- 이귀향, 한국 간호 교육 변천에 관한 연구,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1966.
- 이경복, 고려시대 기녀 연구, 서울:민족문화 문고

간행회, 1986.
 이남덕, 전통 사회와 여성의 힘, 서울:이대출판부, 1975.
 이능화(김상억 역), 조선여속고, 서울:대양서적, 1973.
 이능화, 조선무속고, 서울:백록출판사, 1976.
 이인호, 지식과 역사의식, 서울:분학과 지성사, 1980.
 이영복, 간호사, 서울:수문사, 1986.
 이원호, 개화기교육 정책의 사적연구, 동아대학 박사학위논문, 1982.
 이옥수, 한국 근세 여성사화, 서울:규문각, 1985.
 이효재, 경총량, 일제하 여성노동자 취업실태와 노동운동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연구원, 논총 제22집, 1975.
 여성사 편찬 위원회, 한국 여성사 I, 서울이대출판부, 1972.
 여성사 편찬 위원회, 한국 여성사 II, 서울이대출판

부, 1972.
 열능용, 조선시대의 여성교육에 대한 일 고찰, 성균관대학 석사학위논문, 1974.
 허 방, 한국 개화기의 기독교계 여학교의 여성교육에 관한 일 고찰. 성균관대학 석사학위논문, 1984 <경기 간행물>
 가령잡지, 제 1년 제 4호
 대한민보, 1909년 10월 17일자
 독립신문, 1897년 1월 21일자
 Christian Literature Society, The Korea Mission Field, vol, 3, 4, 18, 24, 36, Seoul, 1907, 1908, 1922, 1928, 1940.
 Methodist Episcopal Church, Korea Woman's Conference Annual Report, Vol. 1~11, Seoul, 1899~1910.
 Methodist Episcopal Church, Minutes of the Korea Annual Conference, Seoul, 1908.

<Abstract>

A Study on Nursing Education in the Enlightenment Time of Korea

Ja-Hyung Lee

(Ewha Womans University, College of Nursing)

Establishment and progress of Korean modern education have been internally influenced by an enlightened idea related to a practical science and externally by the power of foreign countries since the mid-nineteenth century. In particular, Korean women's education was performed through the formal and systematic educational facilities after the enlightenment time of Korea, which modern nursing education follow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ssify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n women and Korean society prior to extending education through the education facilities by examining Korean women's work, the aspects of job and education. It is based on historical materials concerning nursing schools carried by Christians, which made Korean woman an object of education in the enlightenment time. In brief, the results of this study may be described as follow; First, Korean woman held a key post in Korean ancient society but after the transition period between Koryo dynasty and Yi-dynasty, the Korean traditional society putting the first to man compelled a subordinate position from a woman.

Second, most Korean women were occupied with household cares but they were far from occupations. Most lower class women participated in the work engaged in by their husbands, while a woman of low birth had peculiar job until feudal Yi-dynasty. Simultaneously with extending education for women, on the other hand, there was a change in the industrial structure resulted in women's opportunity for jobs. Therefore, at the end of Yi-dynasty there were a small number of factory workers among women.

Third, formal instructions had already been established in Samkuk period but all of them had been only for a man, while living in the deep-rooted confucian idea, only the cultivation of moral habits emphasized and an informal home training was everything to a woman.

Firth, Korean women's education under the systematic educational facilities dates from the enlightenment period concurred with modernizing and christianity had an important effect on it.

Fifth, women's activities in their professional fields, however, didn't stand out until 1910. Refusing to accept a traditional view of womanhood and suggesting new direction, only a few leading women showed the possibility on women's social activity.

Sixth, the first female experts were teachers and doctors but they weren't educated in Korea. The first professional field for woman education was that of nursing education.

Seventh, even though educational facilities for women had been established since the enlightenment period, nursing education was executed under the circumstances that premodern point of view of women prevented themselves from their social activities.

Eighth, with the change of an attitude towards nursing, nurses were considered as helpers in a disease and a disaster. Therefore nursing was evaluated as a desirable work.

The foregoing statements show social conditions when modern nursing was introduced into Korea and the process of establishing modern nursing as a new science. Korea with a time-honored tradition might have its own nursing. Additional study on this, based on historical materials, should be investigated.